



RaonAttI

# MUMBAIKAR

: ) Mumbaikar is the Marathi word to signify a resident of Mumbai.

**RAONATTI 9<sup>TH</sup> INDIA MUMBAI TEAM**

# Contents

1. 4월 일정 소개
2. 문화 체험
3. 관계 맺기
4. 궁금증 & 고민
5. 포토 에세이
6. Life in Mumbai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벽화 그리기	3 벽화 그리기	4 벽화 그리기	5 벽화 그리기	6 벽화 그리기
7 Day Off	8 벽화 그리기	9 Andheri 이사	10 OT	11	12	13
14 Piano Festival	15 English Class Unemployed Youth Survey	16 Hindi Class Unemployed Youth Survey	17 English Class Juhu Street Children	18 Hindi Class Boy' s Home	19 English Class Juhu Street Children	20 Elephanta Cave 방문
21 Day Off	22 English Class Juhu Street Children	23 Hindi Class Juhu Street Children	24 Youth Meeting	25 Hindi Class Juhu Street Children	26 Dharavi 방문	27
28 Day Camp Session 준비	29 Day Camp Cricket 직관	30 Day Camp				

# 문화 체험

# Elephanta Cave

Elephanta Cave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인도 고대의 유적지이다. Gate of India에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그 곳에서 힌두교의 시바(Shiva)신과 관련된 많은 조각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섬에는 많은 야생 원숭이들도 살고 있었다. 조각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



# Cricket

현지 코디네이터의 배려로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 크리켓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볼 수 있었다. 4월 29일 뭄바이에서 열린 Mumbai Indians와 Kings XI Punjab의 경기를 관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크리켓 경기 규칙을 자세히 몰랐었지만 점점 경기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규칙도 알게 되고, 경기의 분위기에 몰입하게 되었다. 인도 사람들과 함께 크리켓을 경기장에서 보고 함께 뭄바이 팀을 응원할 수 있어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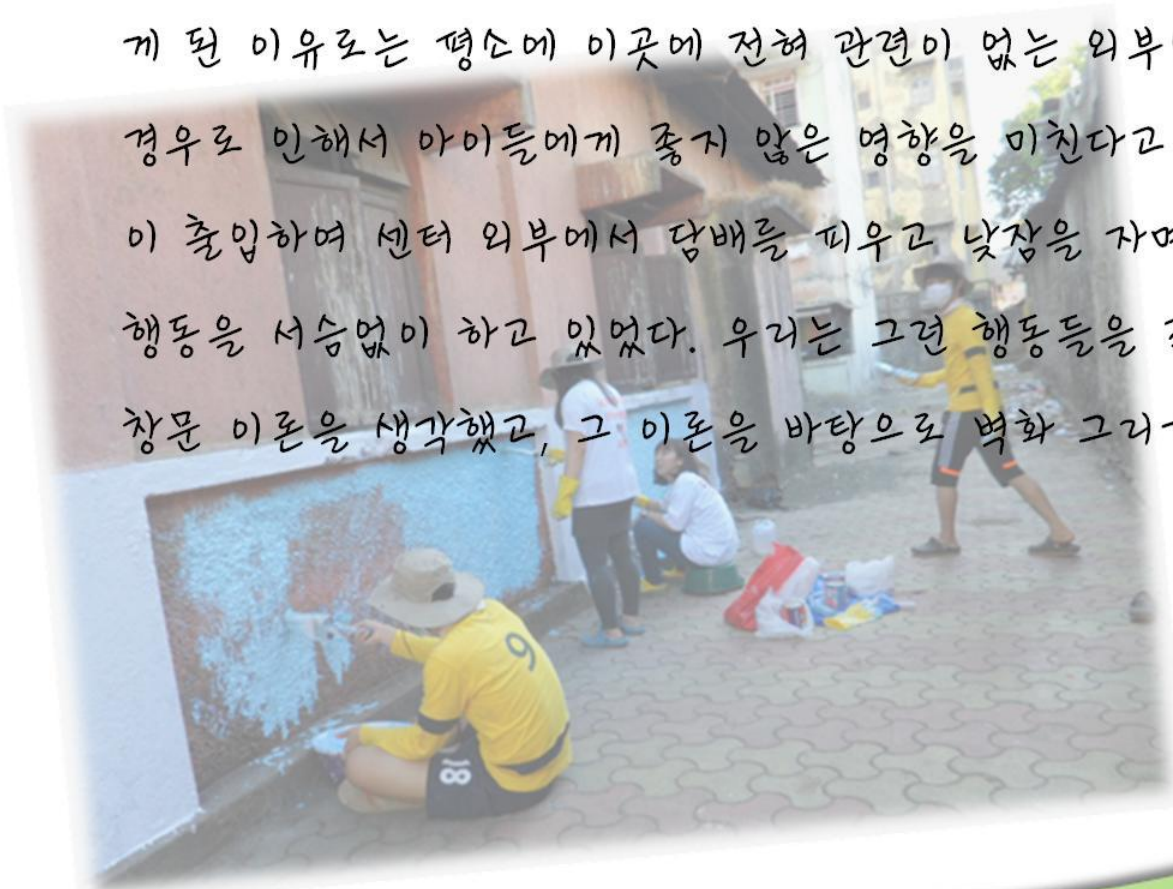




# 관계 맺기

# Day Care Center

4월 2일부터 8일까지 Day care center의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외벽에 벽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유로는 평소에 이곳에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았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외부인들이 출입하여 센터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낮잠을 자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고자 깨진 창문 이론을 생각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벽화 그리기를 선택하게 되었다.







RaonAttī





RaonAtt*i*





RaonA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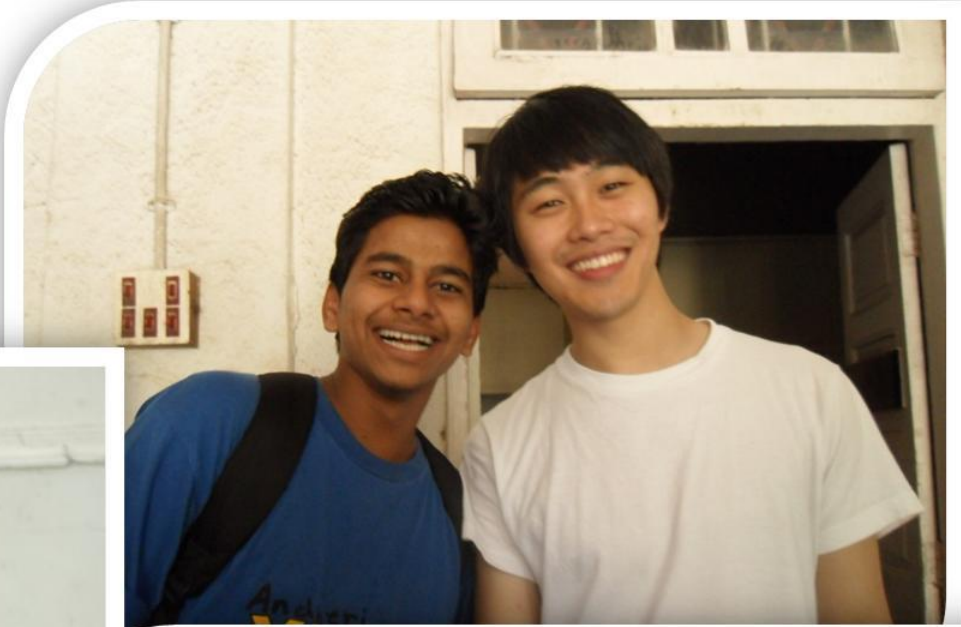


# Moving to Boy's Home

3월 한달 동안 생활한 International House를 떠나 Andheri YMCA의 Boy's Home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비록 Boy's Home의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남은 4개월의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는 6월쯤에 돌아온다고 한다.)







# English Class

Allen의 권유로 우리는 English Class의 보조교사 혹은 봉사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수업은 월, 수, 금 주 3일로 운영이 되고 우리 말고도 2명의 봉사자가 있으며 그들에 의해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 클래스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참여 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과연 우리가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2명의 주교사격인 자원봉사자들과 우리들 간의 역할 분배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고, 우리의 힌디어가 많이 부족하고 학생들은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있어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 간단한 영어를 배우려 하거나,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보조하면서 우리가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aonAtti







RaonAtt*i*





# Unemployed Youth Survey

YMCA의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길거리에 사는 Youth들에게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첫 주에 social worker와 youth들이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survey를 하고, 둘째 주는 모집된 5명의 Youth와 미팅을 가졌다. 현지에서 제시한 우리의 역할은 Youth들에게 면담을 통한 동기부여인데, 지금까지 길거리에 살면서 직업을 갖지 않고 begging을 하고 있던 youth들이 많으므로 직업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갖도록 돕게 된다. 하지만 직업을 갖지 않은 우리가 youth들에게 어떻게, 또 얼마나 동기를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다.



RaonAttī



# Juhu Street Children Center

Juhu Street Children Center의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survey를 돕기도 하였지만, 이곳에서의 우리의 주된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관찰하고 고민하는 것이었다.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이곳에 대해 관찰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방문 할 때 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 해보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Juhu에 가는 시간대에 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수도 일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인 경우도 종종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Juhu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간단히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센터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을 비교해보고 센터의 소셜워커와 상의한 후에 5월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다.



RaonAtti





RaonAtt! 





RaonAtti



# Day Camp

Day camp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렸다. 이 캠프는 Andheri YMCA 와 Bandra YMCA Branch 내에서 열리는 캠프로서 우리는 프로그램 진행을 돕기도 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도 하였다.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Andheri에서는 전통놀이인 제기돌 직접 만들어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Bandra에서는 지구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정이 끝나고 나서 들었던 고민은 첫째, 자원봉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지 봉사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진행하기 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뒤에서 지켜보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프로그램 준비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우리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각 Y별 하나밖에 할 수 없었다.

둘째, 아이들을 대할 때의 태도이다.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현지 봉사자들은 호루라기를 사용하거나 호통을 치며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들과의 원만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통제를 쉽게 하여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RaonAtti





RaonAtt! 







궁금증 & 고민

# Dharavi

Dharavi는 아시아 최대 슬럼 중 하나로서, 우리는 인도 경제 중심지인 뭄바이 중심부에 슬럼이 존재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26일 social worker와 함께 방문하였다.



하지만, 실제 방문하니 기존에 생각하던 슬럼의 이미지와 달리 거리에는 상점과 많은 집들이 존재하였다. Dharavi 지역 social worker와 만나 대화를 해보니, 몇 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주거단지과 수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뭍바이의 거부들이 지역의 땅을 매입하여 땅값이 오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Dharavi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의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웠던 점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투쟁에서 Dharavi 거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용산사태와 비교하게 되었는데, 거주민들이 정부나 기업, 부자들의 압력에도 민주적으로 권리를 지켜내는 과정이 궁금해졌다.

앞으로 social worker와 궁금증을 공유하며 다시 한번 Dharavi를 방문했을 때,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다.





포포 미(시)미



## SONAM(박선영)



Nursery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한 여자 아이가 수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울고 있었다. Nursery 선생님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었다는 듯, 그 여자 아이에게 왜 우는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만 울라고 다그치셨다.

아마 평상시에도 그 여자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을 불안해 하고 nursery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울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이 옆으로 가서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힌디어로 그 아이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었다. "티쳐 맘 빠싼 해(선생님은 너를 좋아해.)", "도스트 맘 빠싼 해(친구들은 널 좋아해.)" 라고 반복하면서 등을 두들겨 주고 있었는데도,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칠 듯 하다가도 다시 울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에 사진의 주인공, '우제파'라는 아이가 나와 울고 있던 여자 아이 사이로 파고 들어와서 나와 똑같이 울고 있던 여자 아이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우제파의 행동을 보는 순간, 정말 울컥했다. 우제파라는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나는 그런 우제파의 행동에 더욱 감동받았다. 우제파의 그 행동 하나가 내 심금을 울렸고, 날 울컥하게 했고 날 행복하게 했고, 내 안의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 내 안의 무언가를 터뜨린 것 같기도 했다. 그 순간, 우제파는 작은 별이 되어서 내 마음 속에 꼭 박혔다.

그 작고 통통한 손으로, 날 보면서도 싱긋 웃는 채로 등을 두드려 주었다. 얼마나 나를 지켜 보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렇게 길러낼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도 들었다. 우제파의 이 행동 덕분에 우는 아이는 울다가 우제파를 신기하게 쳐다보았고, 근처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다가와서 우는 아이의 등을 같이 두드려 주었다. 가슴이 너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옆의 사진은 동화책의 한 장면인데, Juhu beach street children center에서 한 아이, '구나'와 같이 이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책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구나가 이 고래의 꼬리를 보면서 하늘의 달 같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구나의 생각이 매우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 고래의 꼬리를 꼬리로만 보지 않고 달로도 볼 수 있는 그 아이의 열려 있는 시선이 놀라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의 이런 잠재성을 더욱 길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social worker, '찬드라 칸'이라는 분과 Juhu beach 근처에서 아이들을 센터로 모집하기 위해 같이 조사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찬드라 칸에게서 교육에 관해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찬드라 칸은 뭍바이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경제활동을 위해) 그 중 절반 정도는 슬럼에 거주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슬럼에 거주하는 많은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이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했다. 부모들은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같은 삶을 물려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 내가 평소에 교육자에 관해 매우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안의 칠판 앞에서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하는 사람만이 교육자가 아니라, 학교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일이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교육의 대상이 아이들만이 아니고 부모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야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참된 교육을 위해, 센터의 구나라는 아이처럼 자신만의 창의력과 개성을 가꿔갈 수 있도록, 나도 구나라처럼 열려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행동해야겠다.

## JYOTI(천보감)



YMCA에서 unemployed youth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결국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 youth를 모집하고, 찾는 과정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는데,

소셜워커와 함께 슬럼가를 돌아다니면서 youth의 연령, 학력, 수입 등의 기본 정보를 조사하였다. 또 현지 쿤디에게 요청해서 슬럼 지역인 Dharavi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다. Dharavi에서 그 슬럼지역의 중심에서 그 지역을 위해, Dharavi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소셜워커들도 만났다. 인도에 와서, 지난 시간 동안,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절대적 가난 속에서 길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며' 그들을 지나쳤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에 직접 가보고, 다리 밑에서, 흙먼지 위에서 주거지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한 발짝 조금 더 다가서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처음에 다리 밑에 거주하고 있는 거리의 사람들, 슬럼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달려왔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신기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 아이들은 자기가 절대로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하고 변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매일 매일 호화스러운 집에서 충분한 영양의 식사를 하고, 원하는 옷을 사 입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갖지 못해서 안달하는 삶을 살고 있고. 왜 이런 극명하게 반대인 삶을 살아야 할까?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모두가 다 그나마 살아갈만한, 자기의 삶을 기대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없는 걸까.

국내 훈련에서 들었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의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자본주의가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내재된 사상인데 자본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는 현재의 사회를 살면서,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오랫동안 노력해서 그러한 삶을 살만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절대 가난 속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고 가난으로 인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죽어가야 한다는 건가? 그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너무 모순이 가득하다. 진짜 슬프다.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이다.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세상이다.

khar slum area festival에 갔었는데, 그 축제에서는 슬럼의 사람들이 직접 음식도 준비하고 음악과 흥에 겨워서 저녁이 되면 춤도 추고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서 축제를 즐기게 된다고 했다. 특이했던 점은 사람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데, 축제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음식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너무 신기하다. 한국에서는 진짜 작은 가판대에서 적은 양의 음식들조차 비싼 값에 판매되는데 여기서는 축제의 공간에서, 길거리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그 모든 음식을 공짜로 제공한다니, 그것도 정말 반어적이게도 슬럼 area에서. 뭔가 부를 갖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욱 나눔을 더 실천하고 있는 게 신기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내 생각 속에 편견이 박혀있는 거겠지. 내가 잘못된 거겠지만 정말 이런 문화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오히려 정말 이상으로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다. 살아오면서 그런 문화를 접해보기가 정말 어려웠다. 하물며 나 자신조차 그런 가난 속의 나눔을 실천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모순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알고는 나누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싶고, 구조의 모순에 대해 격분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격분하지만, 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 내 자신이다. 모순적이고 미안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국내 훈련 동안 빈곤과 환경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접해보게 되었지만, 그게 나의 생각 속에서 그랬다는 느낌이 든다. 지구시민 교육을 할 때 불공정한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때도 엄청 많이 울컥했고 슬퍼했지만, 또 인도에 와서 인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과자와 음료수가 불공정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것이 공정하냐고 묻는 질문에 아이들이 몹시 큰 목소리로 아니라고 소리칠 때, 아이들 스스로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소소하게나마 인식했다는 것에 또 울컥해서 눈물이 많이 났었다. 하지만 격분하는 나의 감정과 다르게 나의 행동, 나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나의 행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은 거리낌 없이 사고, 하물며 밀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들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발적 불편은 조금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는 나의 위선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행동과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하루하루 날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느낌을 갖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신기하다. 인도에 와서, 항상 똑같은 일정일지라도 그랬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랬다. 한국에 있었다라면 느끼지 못했을 거 같은데, 한국에 있었다라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 그 날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일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정말로 매일 매일 순간순간,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사뭇 다르다. 매일 인도 사람과 이야기 하고 내 눈으로 보고, 인도의 사회 문제들을 직접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니, 신기할 뿐이다. 날마다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너무나도 소중한하다.



# PRIYANKA(김조은)



인도에 온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이제 나와 팀원들이 다니는 인도 길의 풍경이 익숙해지고, 덥게만 느껴지던 인도의 날씨에도 익숙해졌다. 인도에서의 생활이 거의 모두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게 있다.

만남과 헤어짐과 또 새로운 만남.

두 달 인도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한번의 대 이사가 있었다. 이사 할 때에는 새로운 곳 가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냥 신이 났던 것 같다. 하지만, 막상 Central에서의 한 달과 Andheri에서의 한 달을 보낸 지금에서야 처음 인도에서의 한 달을 같이 보냈던 Day Care Centre 아이들과의 시간이 떠오르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우리가 떠날 때 아침에 와서 배웅해주겠다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까지 따라오던 아이들. 벽화를 그릴 때 꼭 와서 공놀이를 하자던 아이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나와 만나는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가운 표현을 나에게 해주었던 것 같다. 반면, 나는 계획한 일들에 지치고,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지치고 아이들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드러냈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헤어진 지금이야 아이들의 감정과 아이들이 왜 나에게 짐짓은 장난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왜 항상 떠나거나, 상대가 없어야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생각 하는 걸까?

나는 이번 달 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다. Day Care Centre 애들 생각에 너무 미안해서, 또 이제 새로 만나고 나와 새로운 인도 생활을 할 Boyshome 아이들에게도 헤어지고 나서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까 봐. 이런 미안한 마음 끝에 나는 지금 순간순간 만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 눈을 맞추고 있는 사람과의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내 스스로가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부터라도 매 순간 새로운 만남에 설레고, 헤어짐에 눈물 흘려 슬퍼 할 수 있을 최고의 순간들을 보낼 것이다.

아마, 내 생애 최고의 5개월 동안 인도의 모든 것이 적응 되어도,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은 적응 되지 않을 것 같다! 인도에서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그 순간 만남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제 남은 기간에서의 만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나의 마음가짐.

아마, 내 생애 최고의 5개월 동안 인도의 모든 것이 적응 되어도,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은 적응 되지 않을 것 같다!

## AMAN(고동진)



"만약 인도에 가게 되면 그곳의 아이들과 무엇 할 생각인가요?"

"저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며 아이들과 마음을 나눌 생각입니다."

이 대화는 내가 라온아띠 면접 시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 라온아띠를 지원할 때부터 이에 관한 많은 고민을 했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갔으면 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막상 내 자신을 돌아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 현실이 슬프기는 했지만 수긍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 보기 시작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결국 내가 찾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려고 노력했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내 자신도 즐거웠고 아이들도 즐거워 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너무도 기뻐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같이 놀 때는 즐겁고 좋다. 하지만 그런 활동이 반복 될 수록 우리에게 대한 아이들의 흥미와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흥미가 점차 떨어졌고 몸도 지쳐갔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과 놀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활동에 대한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매일 같이 가서 아이들과 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곳 인도까지 와서 하는 활동에 큰 의미가 없는 것만 같았다. 결국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다고 말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허울뿐인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현지 스태프와 나눠 본적이 있다. 그때 스태프 중 한 명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그런 우리와 아이들이 서로 교감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었다. 어느 정도 수공이 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과 즐겁게 놀다가도 마음 속 불편함을 느낀다. 함께 논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아직 아이들과 함께 할 날이 많이 남았다. 내가 처음에 생각 했던 아이들과 함께 논다는 것과 지금 내가 직면한 아이들과 함께 논다는 것의 의미를 잘 되뇌어 봐야겠다.

ABHISHEK(나한영)



4월, 우리는 인도에 왜 왔을까?

이번 포토에세이의 내용은 우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자,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이다.

첫째, 우리의 역할에 대한 고민

내가 이 변화를 그리기에 동참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보고서에 적은 것처럼,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예쁜 환경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게 해 주고픈 동정 어린 마음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으로부터의 해소였다. 한 달간의 국내훈련은 자원 활동이란 무엇을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말되, 그들 스스로 현실에 맞게 변화하고 자립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하지만 현지에 와서 보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 만난 나라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고 현지인들의 기대치와 의구심은 하루 하루 점점 생겨갔다.

그러나 다 완성하고 뿌듯함도 잠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 곳에 왜 왔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그림이나, 환경 보수 및 개선에 맞는 기술자나, Social worker들이 왔다면 더 우수하고, 전문적이며,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할 텐데' 라고...

또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현지인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한다.

“너희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너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무엇이든 말하지 잘 모르겠어.”

이들에게 ‘한국에서 온 친구’ 라는 우리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

## 둘째,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

우리 팀원들이 아이들과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 정말 행복해 보인다. 마냥 아이들을 보기만 하며 웃는 팀원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웃는 팀원도 있다. 아이들이라는 존재를 그 자체로 좋아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 벽화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활동의 본래 목적을 우리 스스로 많지 않은 이유도 나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자면, 벽화를 칠하는 과정 사이에, 정작 주인공인 아이들의 시선으로 벽화를 그려간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마다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팀원들이 어떻게, 얼마나 아이들을 생각하는 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첫 번째,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팀원들처럼 어떤 목적도, 대가도 없이 처음 만난 생소한 외국인들을 위해 웃어주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Life in Mumbai

















